

통일 그림동화

# 이혜리와 리혜리

전현정 글 | 최정인 그림







### 작가의 말

우리가 염원하던 통일이 이제 금방이라도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남과 북은 언어도 문화도 생각도 달라졌고,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만큼이나 서로가 낯설어졌습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많은 동화들이 '남한이 바라본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혜리와 리혜리》는 남한 어린이 이혜리가 본 북한 어린이 리혜리와 북한 어린이 리혜리가 바라본 남한 어린이 이혜리, 두 시선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놀이도 다른 두 혜리가 서로를 알아 가는 과정을 통해 비록 지금은 남과 북이 나뉘어 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남과 북의 어린이가 처음 만나 다름을 인정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먼저 만나는 통일을 그려 보고 싶었습니다.

전현정





# Hyeri Lee and Hyeri Ri



I was the only Hyeri Lee in the Sunshine Class. Until she came.

On the first day the tall Hyeri arrived, I became Brave Hyeri although I am afraid of puppies and bugs. The newly arrived Hyeri became Smarty Hyeri.



We were served rice with peas for lunch. Why do I seem to get more peas in my rice? The peas are like endless ants crawling out of their homes. It keeps coming out of my rice, no matter how many I pick out.

Smarty Hyeri puts a mouthful of pea rice in her mouth, and can even eat the seasoned spinach. "Smarty Hyeri, you're not a picky eater at all!" She smiled as our teacher praised her. I hate peas more than anything in the world. Are peas really delicious for Hyeri?



I was playing blocks with Saeyeon. As I was putting the last block on the house that I was building, Smarty Hyeri passed by hitting my hand. It tipped my blocks and my house crumbled down. "You ruined my house!" I screamed but Smarty Hyeri didn't even apologize. She just went out of the classroom.



It was origami time. "Fold your favorite animal and write its name." I did exactly what the teacher told us to do. But the bunny became a fox, and the crane became a chicken. I quickly wrote the names before my friends could ask me what kind of animals I folded.

While I was folding the bunny and the crane, Smarty Hyeri folded more than ten lions. "It looks like a real lion." All the children ran to Hyeri asking her to fold animals for them.



We were playing the Map Puzzle game. This is a game where you find the puzzle pieces where your relatives live and place it on the map.

Hee-young's grandfather lives in Namhae, Saeyeon's grandmother lives in Busan, Hyeonmin's uncle lives in Paju, and my grandmother lives in Jeju Island. Smarty Hyeri's grandmother lives in Kaesong. My grandmother's house is at the very bottom while Smarty Hyeri's grandmother's house is at the very top.



Two days later, it is Chuseok(Korean Thanksgiving Day). Heeyoung, Saeyeon, and even Hyeonmin went to their grandmother's houses and did not come to kindergarten.

As usual, my family is not going to grandma's house for Chuseok, since mom and dad's rice cake store is the busiest during the holidays.



After all the other children went home, it was just Smarty Hyeri and I left in the classroom. I was reading a book for a bit but soon closed it. "You didn't finish reading it," said Smarty Hyeri as she stared at me. "None of your business," I said. I was feeling irritated for some reason. Why is my mom so late today? A doorbell rang at the entrance of the kindergarten. It must be mom. I heard my mom's footsteps. I ran straight for the door. But... it wasn't mom.



Then I heard another doorbell ring. This time it had to be mom. But the person who opened the door was Smarty Hyeri. I didn't want to cry but tears kept falling. "Hyeri, do you want to fold papers with me?" Smarty Hyeri pulled out a red colored paper from her bag. After folding papers alongside with Hyeri, we ended up making two fish. When I saw the red fish, I remembered the red fish book. The red fish book is a book that Smarty Hyeri reads every day.



The two Hyeris read the book very slowly.

# Hyeri Ri and Hyeri Lee



There is another Hyeri in the Sunshine Class besides me.

I stutter as I read and can't write that well. But I became Smarty Hyeri. The other Hyeri can read books well and write well, too. But she became Brave Hy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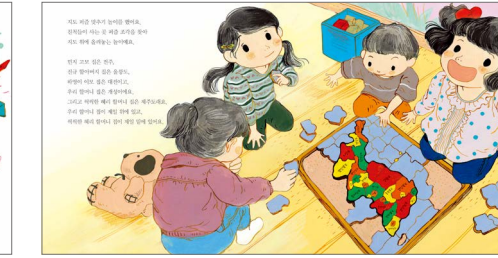
We were served kimchi again at lunch time. Why is kimchi so spicy? I wash it in the water and blow at it but it is still teary hot.

But Brave Hyeri can eat kimchi even without washing or blowing at it. "Brave Hyeri can eat spicy food so well!" She shrugged her shoulders as the teacher praised her. To me, kimchi is hotter than the volcano. Is kimchi really not spicy for Hyeri?



We folded animals with colored papers today. I fold papers at home every day so I can fold bunny, fox, giraffe and lion all by myself. But the only word that I know is lion so I only folded lions over and over again.

Brave Hyeri already finished folding papers and even wrote the names of the animals. Brave Hyeri can even write difficult words like "chicken."



We were playing the Map Puzzle game. This is a game where you find the puzzle pieces where your relatives live and place it on the map.

Minji's aunt lives in Jeonju, Jinyu's grandfather lives in Ulleungdo, Hayoung's aunt lives in Daejeon, and my grandmother lives in Kaesong. Brave Hyeri's grandmother lives in Jeju Island. My grandmother's house is at the very top while Brave Hyeri's grandmother's house is at the very bottom.



After all the children went home, it was just Brave Hyeri and I left in the classroom. As Brave Hyeri began to read a book, my ears pricked up. Hyeri can read a book very fast. But I guess the book she read today wasn't that interesting. "Mom!" Hyeri ran toward the door. But the person who opened the door of the classroom was my mom.



As I was leaving the classroom, I heard a snuffle. I pulled my mom's hand. "All right. Hyeri Ri, you can play some more. I'll be waiting for you here." When I opened the classroom door, there was Brave Hyeri standing in front of me. As Hyeri saw me, she began to cry again. I folded papers with Brave Hyeri. When I wait for my mom, I fold colored papers and she comes to get me right away like magic. I folded two fish. So Brave Hyeri's mom will come for her soon. Brave Hyeri took out the red fish book. That's my favorite book.



It was when I was playing strings with Minji. There was a bug that was crawling on Brave Hyeri's back. The bug was wiggling and crawling around. It was just about to climb onto Brave Hyeri's hand. I tapped Brave Hyeri's hand softly.

As Brave Hyeri stood up, the blocks fell. The blocks almost crushed the bug. I ran out of the classroom and placed the bug on the flower in the flower bed.



Once again, my family cannot go to grandmother's house again for this Chuseok. Kaesong is closer than Jeju Island and Busan, but we still cannot go there.



Hyeri and Hyeri wanted to be with each other for a little bit longer.

# 이혜리와 리혜리

전현정 글 | 최정인 그림



햇님토리반에 이해리는 나 혼자였어요.  
그 애가 오기 전까지는요.

키가 큰 헤리가 온 첫날,  
나는 강아지도 벌레도 무서워하는데  
씩씩한 헤리가 됐고요.  
새로 온 헤리는 푹푹한 헤리가 됐어요.





점심시간에 완두콩밥이 나왔어요.  
왜 항상 내 밥에만 콩이 많을까요.  
개미집에서 개미가 자꾸자꾸 나오는 것처럼  
콩은 골라내고 골라내도 또 나와요.

뚝뚝한 헤리는 완두콩밥도 크게 한 입 떠서 먹고,  
시금치나물도 잘 먹어요.

“뚝뚝한 헤리는 골고루 잘 먹는구나.”  
선생님 칭찬에 헤리가 씩 웃어요.  
나는 우주에서 콩이 제일 맛있는데  
헤리는 콩이 진짜 맛있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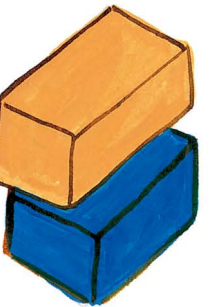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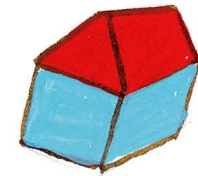
세연이랑 블록 놀이를 할 때였어요.

마지막 블록을 쌓고 집이 완성되려는 순간,  
푹푹한 헤리가 내 손을 푹 치고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블록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너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

내가 소리 질렀지만 푹푹한 헤리는 사과도 안 하고  
교실 문 밖으로 휙 나가 버렸어요.





종이접기 시간이었어요.

“좋아하는 동물을 접고 이름을 쓰세요.”

분명히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토끼는 여우가 되고, 학은 닭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무슨 동물이냐고 물어볼까 봐

얼른 이름을 썼어요.



내가 토끼와 학을 접는 동안

똥똥한 헤리는 사자를 열 개도 넘게 접었어요.

“진짜 사자 같다.”

아이들은 헤리에게 달려가

자기 것도 접어 달라고 떼를 썼어요.





지도 퍼즐 맞추기 놀이를 했어요.  
친척들이 사는 곳 퍼즐 조각을 찾아  
지도 위에 올려놓는 놀이에요.

희영이 할아버지 집은 남해,  
세연이 할머니 집은 부산,  
현민이 삼촌 집은 파주고,  
우리 할머니 집은 제주도예요.  
그리고 똥똥한 헤리 할머니 집은 개성이라요.  
우리 할머니 집이 제일 밑에 있고  
똥똥한 헤리 할머니 집이 제일 위에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추석이에요.  
희영이도 세연이도 현민이도  
할머니 집에 가서 유치원에 안 왔어요.

우리 가족은 올 추석에도  
할머니 집에 안 갈 거예요.  
아빠 엄마 떡집은 명절 때 제일 바쁘거든요.





아이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교실에는 푹푹한 헤리와 나만 남았어요.  
책을 조금 읽다가 덮었어요.  
“다 안 읽었잖아.”  
푹푹한 헤리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내 마음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괜히 심술이 났어요.  
엄마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을까요?

유치원 현관에서 벨 소리가 났어요.  
분명 엄마일 거예요.  
우리 엄마 발자국 소리가 났거든요.  
나는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니에요.





또 벨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엄마일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푹푹한 헤리였어요.

안 울고 싶은데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헤리야, 우리 종이접기 할래?”

푹푹한 헤리가 가방에서 빨간 색종이를 꺼냈어요.

헤리와 나란히 앉아서 종이접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물고기 두 마리가 완성됐어요.

물고기를 보니 빨간 물고기 책이 생각났어요.

빨간 물고기 책은 푹푹한 헤리가 매일 보는 책이에요.





두 헤리는 아주 천천히 책을 읽었어요.



헤리와 헤리는 좀 더 같이 읽고 싶어했어요.



유치원을 나서는데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엄마 손을 잡아당겼어요.  
 “랑얏야, 리혜리. 여기서 기다릴 테니 더 기다와.”  
 꼬친 문틈 여너 찌직한 혜리가 문밖에 서 있었어요.  
 나와 눈이 마주친 혜리가 또 똥기 시작했어요.



나는 찌직한 혜리와 종이접기를 했어요.  
 엄마를 기다릴 때 종이접기를 하면  
 신기하게 엄마가 금방 돌아와요.  
 물고기를 두 마리나 접었으니까  
 찌직한 혜리 엄마도 곧 똥기예요.  
 찌직한 혜리가 똥기 묻고기 책을 가져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이들 모두 침으로 돌아오고  
 교실에는 썩썩한 해리와 나만 남았어요.  
 썩썩한 해리가 썩 썩하는 소리에 귀를 쫓긋 세웠어요.  
 해리는 책상 밑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책이 재미없나 봐요.  
 “안마,  
 해리가 곰팡이를 포획했어요.  
 그런데 피침곰팡이를 포획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들이 지나면 추억이에요.  
먼지도 잔구도 하영이도

할머니 집에 가서 유치원에 안 왔어요.  
그래도 씩씩한 헤리는 유치원에 왔어요.

우리 가족은 용 추억에도 할머니 집에 못 가요.  
개성은 부산보다 제주도보다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지도 퍼를 맞추기 놀이를 했어요.  
친척들이 사는 곳을 조각을 찾아  
지도 위에 올려놓는 놀이예요.

민지 고모 집은 전주,  
진규 할아버지 집은 용문도,  
하영이 이모 집은 대전이고,  
우리 할머니 집은 개성이에요.

그리고 찌찌한 혜리 할머니 집은 제주도래요.  
우리 할머니 집이 제일 위에 있고,  
찌찌한 혜리 할머니 집이 제일 밑에 있어요.





모름은 종이접기로 동물을 만들었어요.  
나는 집에서 매일 종이접기를 해서  
토끼도 여우도 기린도 사자도  
훈자 다 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는 큰자가 사자밖에 없어서  
사자만 접고 또 접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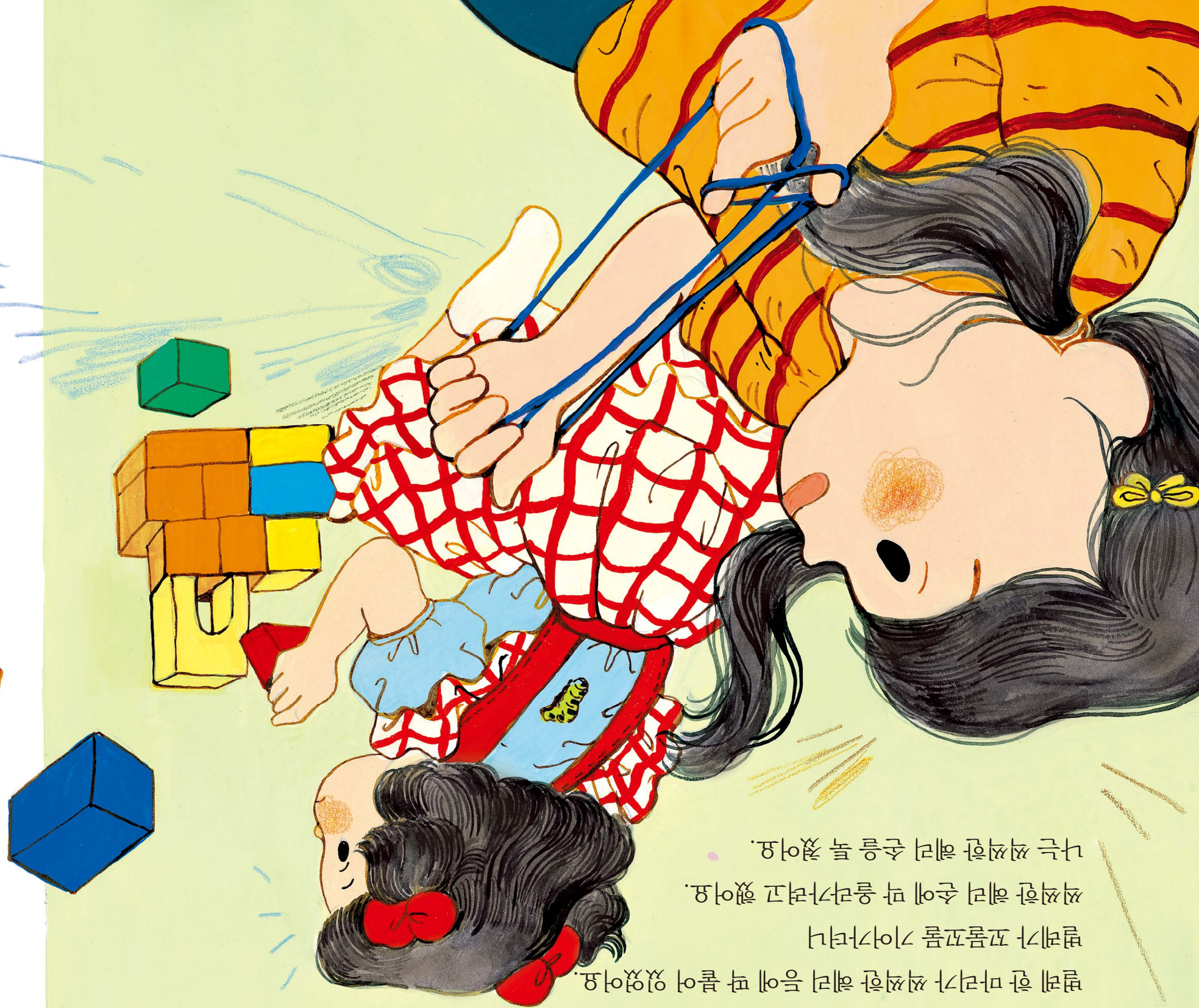


씨씩한 헤리는 별써 종이접기를 다 하고  
동물 이들도 다 썼어요.  
씨씩한 헤리는 '딱'간이 어려운 큰자도 취척 잘 써요.





민지랑 신 췌기 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변레가 꼬롬꼬롬 기어가더니  
 변레 한 마리가 썩썩한 혀리 등에 딱 붙어 있었어요.  
 썩썩한 혀리 등에 마름라가려고 했어요.  
 나는 썩썩한 혀리 손흥 놀렸어요.



썩썩한 혀리가 변떡 일어나면서 블록이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변레가 블록에 깔릴 뻔했어요.  
 나는 꼬침 밖으로 뛰어나와  
 화단에 핀 꽃 위에 변레를 용려 졌어요.





점심시간에 또 김치가 나왔어요.  
김치는 왜 이렇게 매운 걸까요.  
물에 씻고, 호호 물이 봐도  
근물 나오게 매워요.



썩썩한 해리는 김치를 씻지도 않고  
호호 물지도 않고 잘 먹어요.  
“썩썩한 해리는 매운 것도 잘 먹는다.”  
선생님 칭찬에 해리가 어깨를 으쓱해요.  
나는 김치가 화산보다도 더 매운데  
해리는 김치가 진짜 안 매운 걸까요?





헛단트리만에는 나 많고 헤리가 한 명 더 있어요.  
나는 책 읽을 때도 더듬거리고 글씨도 잘 못 쓰는데  
물론한 헤리가 됐고요.  
책도 잘 읽고 큰씨도 포박포박 잘 쓰는  
헤리는 짜짜한 헤리가 됐어요.











## 이혜리야 리혜리

문 전현정 그림 최영민

디자인·제작 주니어김영사 031-955-3100

발행처 돌림부 돌림교육원 연구개발과

주소 01018 강북구 4, 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6 홈페이지 www.unideu.go.kr

발행일 2018.12.

ISBN 979-11-964775-1-6 (바메꽃)

개짜먹기 법칙》 등이 있습니다.

서풍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편화를 공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림 그리며 행복합니다. 동화 속 개구쟁이들의 익살스러운 모습들 특유의 풍부한 표현력과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림 도둑 준모》 《바리공주》 《반장고 우정》 《미몽 일기장》 《살아난다면 살아난다》 《오시근둥이의 학교생활》 《지구

그림 최영민

기지와 단극특별보호구역명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오랫좌 풍모 클럽》으로 제19회 황금도깨비상을 받았고, 지은 책으로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헬로 오지니》 《니제 어저께 텔레교실》 《플러져 선생네 방송반》 《한밤의 칠새동신》 《오색 잔란 아프리카는 건지 않아》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단극세종기지현립 30주년 기념 단극제현단으로 선정되어 단극세종

꼭꼭 숨어 있다고 믿으며, 지금도 연산의 애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진 짓는 법을 배웠고, 엄마가 돼서는 동화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글 짓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근사한 할머니가 되기 위한 절매 애너지는 동화책 속에

문 전현정





공농간림울  
농림울



KCPA는 이 제품이 윤물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ISBN 979-11-964775-1-6



<판매물>



작가 | 최정인 그림

# 바리새의 바리새

농림울 출판